국토계획
pISSN: 1226-7147, eISSN: 2383-9171
https://doi.org/10.17208/jkpa.2026.10.61.5.147
Check for updates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Vol.61, No.5 (202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61권 제5호 pp.147-162

교육 및 취업을 위한 수도권 이동이 청년층 임금에 미치는 영향
: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The Impact of Migration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on Youth Wages
: Gender Differences

서정흔** · 마강래***
Seo, Jeong-Heun · Ma, Kang-Rae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gender differences in the wage effects of migration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among young college graduates from non-metropolitan regions in South Korea. Although migration to the SMA generally improves labor market outcomes, limited research exists on whether its returns differ by migration pathway and gender. Using the 2019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this study classifies migration into three pathways relative to a non-SMA college/non-SMA job reference group: migration to an SMA college only (Path 1), migration to an SMA job only (Path 2), and migration involving both an SMA college and SMA job (Path 3). Heckman selection models account for sample selection bias. The results show that migration pathways involving SMA college attendance (Paths 1 and 3) generate significant wage premiums for both men and women. By contrast, pure job migration (Path 2) yields a significant wage premium only for women, with no significant effect for me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gender differences in migration returns are concentrated in employment-stage migration rather than education-stage migration. Overall,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migration pathways and gender when evaluating the labor market effects of internal migration and designing regional and youth employment policies.

주제어 수도권 이동, 이동경로, 임금 수준, 성별 차이, 헤크만 선택모형
Keywords Seoul Metropolitan Area (SMA) Migration, Migration Pathways, Wage Premium, Gender Differences, Heckman Selection Model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 사회에서 청년층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문제이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이 '성별'에 따라 상이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 인구이동통계를 분석한 이상호(2022)에 따르면, 2010년대 이후 20대 여성의 수도권 순유입 규모는 남성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18년 이후 이러한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홍기석

* 본 논문은 2025년 한국지역학회 후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Ph.D. Student,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Real Estate, Chung-Ang University (First Author: wjdgms1113@gmail.com)
*** 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Real Estate, Chung-A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kma@cau.ac.kr)

(2025) 또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비율의 급격한 증가 속에서 여성 청년의 이동률이 남성을 앞지르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들은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해왔다. 첫째는 '교육 기회의 불균형'이다. 한국 대학은 강한 서열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안준홍·권상욱, 2025). 특히 대학 소재지는 노동시장 성과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며, 수도권 대학 출신이라는 학력 신호(education signal)는 취업 기회와 임금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류장수, 2005; 김희삼, 2010; 남기곤, 2012; 강은택·마강래, 2014). 이처럼 교육을 목적으로 한 수도권 이동은 노동시장 진입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전적(ex-ante) 선택으로서, 향후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는 '일자리 기회의 불균형'이다. 대기업 본사, 공공기관, 전문직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등 양질의 일자리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비수도권 일부 지역은 제조업과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청년층이 선호하는 전문직·관리직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일자리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문영만·홍장표, 2019). 특히 수도권 사업체는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프리미엄을 제공하며(허식, 2007; 김영민·정원석, 2024), 이는 취업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후적(ex-post) 선택으로서 수도권 이동을 유인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지역노동시장권이 협소하여 거주지역의 노동시장 여건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고영우 외, 2018),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수도권 이동을 통한 노동시장 기회의 확대가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보다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처럼 교육과 취업을 매개로 한 수도권 이동이 청년층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보상, 즉 취업 및 임금 효과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 연구들은 지역 간 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주로 초점을 두어 왔으며, 이동경로를 고려한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검토는 제한적이었다. 특히 지역노동시장권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여성의 경우 수도권 이동을 통한 노동시장 기회의 확대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실증적 검토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비수도권에서 성장한 4년제 대학 졸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교육 및 취업 과정에서 형성되는 수도권 이동경로가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단계와 취업 단계의 수도권 이동을 결합한 이동경로를 구성하고, 이를 수도권 대학으로만 진학한 경우(경로 1), 대학 진학 이후 취업 단계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경우(경로 2), 대학과 직장 모두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경로 3)로 구분하여 각 이동경로가 남성과 여성의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일한 수도권 이동이라 하더라도 교육과 취업의 이동경로에 따라 임금 효과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규명하고, 청년층 수도권 이동의 경제적 효과에서 나타나는 성별 이질성을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지역 간 인구이동과 경제적 효과에 관한 논의

지역 간 인구이동은 개인이 더 나은 교육기회와 노동시장 기회, 더 높은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Sjaastad (1962)는 이러한 지역 간 이동을 이동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이루어지는 인적자본 투자로 설명하였다. 특히 청년층에게 수도권 이동은 교육기회와 노동시장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향후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간 이동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규명하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초기 해외 연구들은 지역 간 이동이 더 나은 노동시장으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임금 간 정(+)의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Bartel, 1979; Gabriel and Schmitz, 1995).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이동 이후에도 임금 프리미엄이 나타나지 않거나 특정 집단에서는 오히려 소득이 감소할 수 있음을 제시하면서(Hunt and Kau, 1985; Borjas et al., 1992), 지역 간 이동의 경제적 효과가 항상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해외 연구는 지역 간 이동이 평균적으로 노동시장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으나, 그 효과는 모든 이동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국내 연구에서도 지역 간 이동은 대체로 노동시장 성과를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상호(2010)는 지역 간 이동 이후 전체적으로 6~7%의 실질임금 상승효과를 발견하였으나, 그 효과는 학력수준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영·이주현(2017)은 비수도권 4년제 대학 출신이 수도권에 취업할 경우 비수도권에 취업한 경우보다 월평균 임금이 약 4.8%(10만 원)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최광성 외(2018)은 첫 직장에서 두 번째 직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경우에만 유의한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 간 이동이 평균적으로 노동시장 성과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수도권 이동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최근에는 단순히 지역 간 이동 여부를 넘어 생애주기별

이동이나 이동경로를 고려하여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동훈(2020)은 고등학교·대학교·첫 직장의 소재지를 결합하여 8개 이동유형별 임금수준을 비교한 결과, 거주지를 벗어나 이동한 청년층이 대체로 더 높은 임금을 받았으며, 그중 고등학교·대학교·첫 직장이 모두 비수도권인 유형의 임금수준이 가장 낮고, 비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직장을 거친 유형의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최호권·박인권(2024)은 생애주기별 이동시점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대학 진학 단계의 수도권 이동은 임금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취업 단계의 수도권 이동은 임금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황광훈 외(2025)는 고등학교·대학교·현 직장 소재지를 결합한 이동유형별 임금효과를 분석한 결과, 세 단계 모두 비수도권인 청년층의 임금수준이 가장 낮았던 반면,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비수도권이었으나 취업 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층의 임금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기준집단 대비 8.8% 임금 상승), 취업 단계의 수도권 이동이 임금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최근에는 생애주기별 이동이나 이동경로를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연구는 아직 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연구 결과 또한 일관되지 않다. 더욱이 이동경로의 경제적 효과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2. 지역 간 인구이동의 성별 선별성과 경제적 효과

지역 간 인구이동은 모든 개인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개인의 인적자본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 노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이동의 선별성(migrant selectivity)으로 설명하며, 개인은 이동에 따른 기대편익이 비용을 상회할 때 이동을 선택한다고 본다(Borjas, 1987; Borjas, 2014). 따라서 지역 간 이동의 경제적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동 여부뿐 아니라 어떠한 특성을 가진 개인이 이동하는지에 대한 '선별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에는 이동의 선별성이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동일한 지역으로 이동하더라도 지역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특성은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른 노동시장 기회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도시는 다양한 산업과 직업이 집적되어 있어 개인에게 더 많은 직업 선택지를 제공하고, 노동자와 일자리 간 매칭의 질을 높여 임금 프리미엄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pageorgiou, 2022). 그러나 이러한 도시 노동시장이 제공하는 기회와 그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은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D'Costa(2024)는 영국을 대상으로 여성의 도시 임금 프리미엄이 남성보다 크게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은 도시에서 더 나은 직무 매칭(occupational matching)과 집적의 공유효과(sharing economies)를 통해 남성보다 큰 임금 프리미엄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며 직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에게만 유의한 임금손실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남성에게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도시 노동시장이 제공하는 경제적 기회가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임금 프리미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Petrongolo and Ronchi(2020)는 여성이 남성보다 통근비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원거리 일자리보다 거주지 인근의 일자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간적 제약이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 범위를 제한하여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연구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구조 차이가 성별에 따라 상이한 노동시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한국의 지역 산업구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기능적 분화가 나타나는데, 수도권은 기획·재정·연구개발 등 구상기능이 집중된 반면, 비수도권은 제품 생산 등 실행기능 중심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이성균, 2015). 이러한 산업 기능의 차이는 지역별로 제공되는 일자리의 질과 직업 선택 기회를 다르게 형성하며, 특히 전문직·관리직 등 고학력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공간적 편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

고영우 외(2018)는 여성은 남성보다 통근권이 좁아 지역노동시장권이 제한되므로 거주지역의 일자리 여건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공간적 제약이 노동시장 성과의 성별 차이를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양승훈(2022)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에서는 청년 여성이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며, 이러한 산업구조가 여성 청년의 지역 이동을 촉진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정은(2022) 역시 산업도시 사례를 통해 지역에서 제공되는 일자리와 청년 여성이 선호하는 일자리 간의 미스매치가 존재하며, 특히 대졸 여성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한적인 노동시장 구조가 여성의 수도권 이동을 강화하는 요인임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이 지역의 노동시장 제약을 남성보다 크게 받으며, 수도권 이동을 통해 이러한 제약을 완화할 경우 노동시장 성과 역시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지역 간 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주로 초점을 두어 왔으며, 이동경로를 고려한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검토는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수도권 출신 대졸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취업 단계에서 형성되는 수도권 이동경로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Ⅲ. 분석방법론

1. 사용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의 가장 최신 자료인 2019년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및 일자리를 위한 수도권 이동이 취업 및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의 경우 2006년 패널조사로 시작하였으나, 2012년도 이후로는 횡단면 조사로 변경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2-3년제와 4년제(교육대 포함) 졸업자를 모집단으로 매년 약 4% 수준인 1만 8천 명 정도의 표본을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조사하고 있다.

2019년 자료에는 2018년도 8월 및 2019년도 2월에 졸업한 표본 18,27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시점은 2020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대졸자들의 노동시장 진입 및 성과에 관한 다양한 설문 문항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개인이 경험한 대학, 직장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개인의 다양한 지역 이동 양상도 출생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출신대학 소재지, 직장 소재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대졸자의 개인 특성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가족 및 가구 배경에 관한 변수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에 더욱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고학력 지역 인재의 이동에 보다 초점을 맞추기 위해 분석대상에서 2~3년제 대학 졸업자는 제외하였다. 이는 전문대 졸업자의 전공 구성, 진학 동기, 노동시장 진입 경로가 4년제 졸업자와 상이해(예: 취업 중심의 교육과정, 지역 내 취업 비중이 높음) 표본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출생지 및 성장지(고등학교 소재지)가 모두 비수도권인 4년제 대졸자 청년층(20~39세) 5,566명이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헤크만 표본선택모형(Heckman sample selection model)을 활용하여 교육 및 일자리를 위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실증하고자 한다.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임금 수준)'를 측정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분석 대상을 임금근로자들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미취업 상태의 표본에는 종속변수, 즉 임금에 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금근로자들만을 표본으로 하여 OLS를 추정할 경우 미취업자들의 특성이 배제됨에 따라 표본선택에 의한 편의(selection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택편의의 문제를 고려하고자 헤크만 모형을 활용하였다.

헤크만 모형은 2단계 분석을 통해 표본선택 편의를 보정한다. 먼저 1단계인 선택모형(selection model, 선택방정식)에서는 프로빗 모형(probit model)을 통해 임금근로 취업 여부(미취업자=0, 임금근로자=1)에 대한 관계를 추정한다. 즉, 취업을 선택할 확률이자 선택편의를 보정하는 값인 IMR(Inverse mills Ratio)을 1단계 분석으로 추정하고, 추정된 IMR를 2단계 OLS 모형의 독립변수로 투입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헤크만 모형의 첫 번째 단계인 선택모형의 잠재적 내생변수(z^*)는 $z^* = \omega\gamma + \mu_i$이다. 여기서 $z^* > 0$이면, $z = 1$이고, $z^* < 0$이면 $z = 0$이 된다. 1단계 분석에서의 프로빗(probit) 모형은 식 (1), (2)와 같이 표현된다.

$$prob(z = 1) = \Phi(\omega'\gamma) \quad (1)$$

$$prob(z = 0) = 1 - \Phi(\omega'\gamma) \quad (2)$$

위 식에서 $\Phi(\cdot)$는 표준정규누적분포함수를, ω'는 독립변수들, γ는 추정될 계수들을 의미한다. 이때 프로빗 모형에서 산정한 $\Phi(\omega'\hat{\gamma})$를 사용하여 IMR을 산출한다. 확률밀도함수와 누적분포함수의 비(ratio)를 의미하는 IMR은 2단계 모형의 독립변수로 사용된다. 이어지는 2단계 분석에서는 1단계에서 선택된 표본에 대한 OLS 회귀모형이 적용된다. 선택된 표본에 대한 OLS 회귀모형은 식 (3)과 같다.

$$E(y \mid z = 1) = x'\beta + \rho\sigma\hat{\lambda}(\omega'\gamma) \quad (3)$$

위 회귀모형에서 x'는 독립변수들, β는 추정될 계수들을 나타낸다. 일반적인 OLS 회귀모형과의 차이점은 $\rho\sigma\hat{\lambda}(\omega'\gamma)$가 오차항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단계의 프로빗 모형에 의해 계산된 IMR를 추가적인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이 모형에서 추정되는 계수는 $\rho\sigma$으로, σ는 회귀모형에서 잔차들의 표준오차이며, ρ는 1단계에서의 잔차와 step2에서의 잔차의 상관계수를 의미한다. 상관계수 ρ는 $-1 \le \rho \le 1$값을 갖는다. 이때 두 잔차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면 IMR을 고려하지 않은 OLS 회귀모형의 추정치에 편의(bias)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 값이 통계적으로 0일 경우에는 표본의 선택편의가 없음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적용한 헤크만 표본선택모형은 임금근로 취업 여부에 따른 표본선택 편의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학 진학지와 취업지의 지역 선택 자체에 내재된 선택편의는 고려하지 못한다. 수도권 대학 진학과 수도권 취업 역시 개인의 능력, 선호, 가구 배경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선택의 결과이므로, 각 이동경로는 서로 독립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학업 성취도가 높거나 수도권 취업 의지가 강한 개인일수록 수도권 대학과 수도권 직장을 연속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임금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경로별 임금 프리미엄

에는 지역 선택에 따른 선택편의가 일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 선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택편의를 추가적으로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변수 구성 및 기초 통계

본 연구는 교육 및 일자리를 위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여러 변수들을 큰 틀에서 '개인 특성', '부모 특성', '대학 특성', '직장 특성' '이동 특성' 으로 구분하여 모형을 설계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아래 〈Table 1〉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의 경우, 1단계 선택모형의 종속변수는 '임금근로 취업 여부(wage employment)'이다.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는 경제활동상태를 판별하기 위해 '지난 1주간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적이 있는지'의 문항으로 묻고 있고, 답변은 ①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돈)를 받고 일한다(직장, 아르바이트 포함), ② 내 사업을 한다(개인사업, 프리랜서, 가게·식당 등의 주인 또는 농림수산업), ③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돕는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자'를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를 받고 일하는 임금근로자'로 설정하였으며, 따라서 ②번에 해당하는 비임금근로자와 ③번에 해당하는 무급가족종사자는 연구의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현재 하는 일이 '아르바이트' 인지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동시장 성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아르바이트 역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취업자를 임금근로자로 한정한 것은 수도권 이동이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성과, 특히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에는 노동 제공에 따른 보상뿐 아니라 자본 투입과 사업 위험에 대한 보상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시간당 임금과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의 취업 및 임금결정과정에 초점을 두고 비임금근로자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이러한 표본 구성으로 인해 본 연구의 선택모형은 임금근로 취업 여부를 설명하며, 비임금근로를 선택한 집단은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이동이 비임금근로 진입과 체계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경우 선택편의(selection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비수도권 출신 대졸자의 임금근로 취업 및 임금수준에 대한 수도권 이동 효과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2단계 결과모형의 종속변수는 '시간당 임금(wage rate)'이다. 시간당 임금은 주당 정규근로시간과 주당 초과근로시간을 합한 주당 총근로시간에 4.3주[1]를 곱한 총근로시간을 세전 월평균 총소득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자연로그(log)를 취한 로그 시간당 임금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임금이 가진 왜도를 낮추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의 경우, 기존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되는 변수들을 크게 4가지로 구성하였다. 첫째로 개인 특성은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개인적 노력 특성으로 구분되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변수를, 개인적 노력 특성에는 자격증 수, 학점, 해외연수 경험변수를 포함하였다. 둘째로 부모 특성은, 아버지 학력과 부모자산 변수를 고려하였다. 셋째로 대학 특성은, 국공립 여부, 전공계열 변수를 포함하였다. 넷째로 직장 특성은, 근속연수, 고용형태, 기업체 규모, 산업분류, 직무분류 변수를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이동 특성은, 1단계 선택모형(취업 여부)에서는 수도권 대학이동 여부를 반영하였다. 2단계 결과모형(임금)에서는 대학 진학 시기와 취업 시기의 수도권 이동 경험을 결합하여 수도권 대학으로만 이동한 경우(경로 1), 대학 진학 없이 취업 단계에서만 수도권으로 이동한 경우(경로 2, 순수 취업이동), 대학과 직장 이동을 모두 경험한 경우(경로 3)로 구분한 변수를 반영하였으며, 비수도권 대학·비수도권 직장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헤크만 표본선택모형은 선택방정식과 결과방정식 간 식별을 위해 배제제약 변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승정 외, 20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취업 이후 시간당 임금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 즉 개인 특성인 '연령'과 '배우자 유무', 부모 특성인 '아버지 학력'과 '부모 자산'을 도구변수로 채택하였다.

먼저 연령의 경우, 분석 대상이 동일한 시기에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령이 높다는 것은 졸업 시점이 지연되었거나 진학이 늦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신입 채용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취업 확률을 낮출 가능성이 있으나, 일단 취업한 이후 동일한 직급과 직무 조건 하에서 임금 수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김승정 외(2024) 역시 연령을 표본선택 모형의 도구변수로 활용한 바 있다.

한편 배우자 유무는 노동공급 측면에서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어, 기존 연구들에서도 이를 도구변수로 활용해왔다(임정준, 2010; 변금선, 2015).

부모 특성 변수인 아버지 학력과 부모 자산은 구직 과정에서 정보 접근성, 취업준비 기간, 직장 선택의 폭 등을 통해 취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물론 부모 특성은 교육 및 직장 선택을 매개로 임금 수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결과방정식에서 수도권 대학 이동과 수도권 직장이동을 포함한 이동 특성과 함께 전공, 고용

Table 1. Variables in Heckman sample selection model

Variables				Definition	s	o
Dependent variables		Wage employment		0=Unemployed, 1=Wage employment	V	
		Wage rate		ln (Monthly wage / Total monthly working hours)		V
Independent variables	Migration characteristics	College migration to the SMA		0=Non-SMA college, 1=SMA college	V	
		Job migration to the SMA	Migration path	0=Neither (ref.)		V
				1=SMA-college only (Path 1)		
				2=SMA-job only (Path 2)		
				3=Both (Path 3)		
	Individual characteristic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x	0=Male, 1=Female	V	V
			Age	Age at the time of the survey (20~34)	V	
			Married	0=Non-married, 1=Married	V	
		Individual effort	Certificate	The number of certificates obtained until current job	V	V
			Grade point average	Final GPA at the university (out of 100)	V	V
			Overseas experience	0=No, 1=Yes	V	V
	Parental characteristics	Father's education		0=High school or associate degree or lower 1=Bachelor's degree or higher	V	
		Parental assets		0=Less than 50 million KRW (ref.) 1=50 million to less than 150 million KRW 2=150 million to less than 300 million KRW 3=300 million to less than 500 million KRW 4=500 million to less than 1 billion KRW 5=1 billion KRW or more	V	
	College characteristics	Public university		0=Private university, 1=Public university	V	V
		Major field (ref.=Humanities)		0=Humanities 1=Social sciences 2=Education 3=Engineering 4=Natural sciences 5=Medicine & Health 6=Arts & Physical education	V	V
	Workplace characteristics	Tenure		Tenure at current job (years)		V
		Employment status		0=Non-regular, 1=Regular		V
		Firm size		0=Fewer than 300 employees, 1=300 or more employees (large firm)		V
		Industry classification (ref.=Manufacturing)		0=Manufacturing 1=Construction 2=Commercial & Hospitality services 3=Health & Social Welfare services 4=Other industries		V
		Job classification (ref.=Production & Manual occupations)		0=Production & Manual occupations 1=Management / Office / Finance / Insurance 2=Research & Engineering occupations 3=Public & Social services 4=Arts, Design, Media & Sports 5=Service & Sales occupations***		V

*Production & Manual occupations include construction, mining,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production, and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jobs.
**Public & Social services include health and medical services, education, legal services, social welfare, police, firefighting, and military occupations.
***Service & Sales occupations include personal services, travel,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s, security, cleaning, sales, driving, and transportation.

형태, 사업체 규모, 산업 및 직무 특성을 통제하고 있어, 이러한 조건부 하에서 부모 특성이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추가적인 직접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 헤크만 표본선택모형은 취업자만 관측되는 임금 자료에서 발생하는 표본선택 편의를 완화하고 수도권 이동의 임금효과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Variables				Freq (pct.)	Mean	Min.	Max.
Dependent variables		Wage employment		2,304 (41.39)	-	-	-
				3,262 (58.61)	-	-	-
		Wage rate		-	1.33	0.11	6.00
Independent variables	Migration characteristics	College migration to the SMA	Non-SMA college (0)	4,657 (83.67)	-	-	-
			SMA college (1)	909 (16.33)	-	-	-
		Job Migration to the SMA	Neither	2,078 (63.70)	-	-	-
			SMA-college only (Path 1)	195 (5.98)	-	-	-
			SMA-job only (Path 2)	594 (18.21)	-	-	-
			Both (Path 3)	395 (12.11)	-	-	-
	Individual characteristics	Sex	Male (0)	2,827 (50.79)	-	-	-
			Female (1)	2,739 (49.21)	-	-	-
		Age		-	26.18	21.9	34
		Married	Non-married (0)	5,489 (98.62)	-	-	-
			Married (1)	77 (1.38)	-	-	-
		Certificate		-	1.11	0	16
		Grade point average		-	79.62	40	100
		Overseas experience	No (0)	5,000 (89.83)	-	-	-
			Yes (1)	566 (10.17)	-	-	-
	Parental characteristics	Father's education	High school or associate degree or lower (0)	3,108 (55.84)	-	-	-
			Bachelor's degree or higher (1)	2,458 (44.16)	-	-	-
		Parental assets	Less than 50 million KRW	1,775 (31.89)	-	-	-
			50 million to less than 150 million KRW	728 (13.08)	-	-	-
			150 million to less than 300 million KRW	1,201 (21.58)	-	-	-
			300 million to less than 500 million KRW	1,168 (20.98)	-	-	-
			500 million to less than 1 billion KRW	480 (8.62)	-	-	-
			1 billion KRW or more	214 (3.84)	-	-	-
	College characteristics	Public university	Private university (0)	3,240 (58.21)	-	-	-
			Public university (1)	2,326 (41.79)	-	-	-
		Major field	Humanities	713 (12.81)	-	-	-
			Social sciences	1,120 (20.12)			
			Education	575 (10.33)			
			Engineering	1,581 (28.40)	-	-	-
			Natural sciences	844 (15.16)			
			Medicine & Health	309 (5.55)	-	-	-
			Arts & Physical education	424 (7.62)	-	-	-
	Workplace characteristics	Tenure		-	0.92	0	14
		Employment status	Non-regular	631 (19.34)	-	-	-
			regular	2,631 (80.66)	-	-	-
		Firm size	Fewer than 300 employees	1,101 (33.75)	-	-	-
			300 or more employees (large firm)	2,161 (66.25)	-	-	-

다음 페이지에 계속(Continue on next page)

Variables				Freq (pct.)	Mean	Min.	Max.
Independent variables	Workplace characteristics	Industry classification	Manufacturing	576 (17.66)	-	-	-
			Construction	85 (2.16)	-	-	-
			Wholesale, Retail & Hospitality services	352 (10.79)	-	-	-
			Health & Social welfare services	301 (9.23)	-	-	-
			Other industries	1,948 (59.72)	-	-	-
		Job classification	Production & Manual occupations	165 (5.06)	-	-	-
			Management / Office / Finance / Insurance	1,127 (34.55)	-	-	-
			Research & Engineering occupations	807 (24.74)	-	-	-
			Public & Social service occupations	757 (23.21)	-	-	-
			Arts, Design, Media & Sports	199 (6.10)	-	-	-
			Service & Sales occupations	207 (6.35)	-	-	-

Ⅳ. 실증분석

1. 교육 및 취업을 위한 수도권 이동에 따른 취업 및 임금 수준의 성별 차이

본격적인 실증분석에 앞서, 비수도권에서 성장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교육 및 취업을 위한 수도권 이동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가 성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초통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표본은 출생지와 성장지가 모두 비수도권인 청년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대학 진학과 취업 단계에서의 수도권 이동 경험을 결합하여 수도권 대학으로만 이동한 경우(경로 1), 대학 진학 없이 취업 단계에서만 수도권으로 이동한 경우(경로 2, 순수 취업이동), 대학과 직장 이동을 모두 경험한 경우(경로 3)로 구분하고, 비수도권 대학·비수도권 직장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준집단으로 하여 이동경로별 임금 수준을 성별로 비교하였다.

〈Table 3〉은 이동경로별 청년층의 임금 수준을 성별로 비교한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보면, 남성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1.382로 여성(1.263)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며($t=8.02$, $p<0.001$), 청년기부터 노동시장 성과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동경로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뚜렷하게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경로 1(수도권 대학으로만 이동)의 경우 남성은 기준집단 대비 임금이 0.303 높고($p<0.001$), 여성은 0.165 높아($p<0.001$) 두 집단 모두 유의한 프리미엄을 보이지만 그 크기는 남성에게서 더 크다. 경로 3(대학과 직장 이동을 모두 경험)에서도 유사하게, 남성은 0.271($p<0.001$), 여성은 0.159($p<0.001$)의 유의한 프리미엄을 보인다.

반면, 경로 2(대학 진학 없이 취업 단계에서만 수도권으로 이동한 순수 취업이동)에서는 뚜렷한 성별 차이가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 기준집단과의 임금 격차가 0.005에 불과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p=0.828$), 여성은 0.117의 유의한 임금 격차를 보인다($p<0.001$). 즉 대학 진학을 거치지 않고 취업 단계에서만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 남성에게는 뚜렷한 임금 프리미엄이 나타나지 않지만 여성에게는 유의한 프리미엄이 나타난다.

이러한 기초통계 결과는 수도권 이동의 임금효과가 이동경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대학 진학을 거치지 않은 순수 취업이동의 경우 그 효과가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이는 다른 인적자본·직장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단순 비교에 해당하므로, 다음 절에서는 임금 수준이 취업 여부에 의해 관측되는 변수라는 점을 고려하여 헤크만 표본선택모형을 활용한 경로분해분석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보다 엄밀하게 검증하고자 한다.

Table 3. Gender differences in wages by migration path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test)

Migration path	Male (Mean)	Female (Mean)	Male gap (vs. Ref.)	Female gap (vs. Ref.)
Neither (Ref.)	1.325 (1,080)	1.216 (998)	-	-
Path 1: SMA-college only	1.628 (131)	1.381 (64)	0.303 ***	0.165 ***
Path 2: SMA-job only	1.331 (316)	1.332 (278)	0.005 (n.s.)	0.117 ***
Path 3: Both SMA-college & SMA-job	1.597 (208)	1.374 (187)	0.271 ***	0.159 ***
Total	1.382 (1,735)	1.263 (1,527)		

Note: Wages are measured as log hourly wages.
***p<0.01; n.s.=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0.828)

2. 교육 및 취업을 위한 수도권 이동이 취업 및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연구는 교육 및 취업을 위한 수도권 이동이 취업 여부와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증분석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체 청년층 5,566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취업 단계를 결합한 수도권 이동경로(경로 1, 경로 2, 경로 3)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평균적인 효과를 분석하였다(Model 1). 이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평균적 효과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남성 청년층(2,827명)과 여성 청년층(2,739명)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모형(Model 2-1, Model 2-2)을 추정하였다.

본격적인 결과 해석에 앞서, 헤크만 표본선택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IMR 계수인 λ(lambda)가 λ0.421으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임금 결정 과정의 비관측 요인과 취업 여부를 결정하는 비관측 요인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취업한 개인만을 대상으로 임금을 분석할 경우 표본선택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표본선택 편의를 보정하기 위해 λ항을 포함한 헤크만 표본선택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종속변수가 '임금근로 취업 여부'인 1단계 프로빗 모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특성 가운데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성별이, 개인적 노력 요인에서는 학점과 해외연수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와 같이 남성의 취업확률이 여성보다 높고(김안국, 2003; 오세규, 2003; 정태영·이기엽, 2005), 학점이 높을수록, 해외연수 경험이 있을수록 취업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황여정·백병부, 2008; 안준기, 2009; 이영민 외, 2014). 부모 특성에서는 아버지 학력과 부모 자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확률이 낮고(길혜지·최윤미, 2014; 박지성·옥지호, 2022), 부모 자산이 많을수록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준수·조우홍, 2023). 아버지 학력의 음(-)의 효과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졸업 직후 취업보다 대학원 진학, 유학, 국가고시 및 전문직 준비 등 추가적인 인적자본 축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부모의 경제력은 자녀의 구직활동과 직업탐색 기간을 뒷받침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박지성·옥지호, 2022).

한편, 대학 특성에서는 대학의 설립 유형과 전공 계열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립대학에 비해 국공립대학 졸업자의 취업 확률이 높았으며(채창균·김태기, 2009), 인문계열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전공계열에서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동 특성에서는 수도권 대학 이동이 취업확률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수도권 대학 진학이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채창균·김태기, 2009; 허현자, 2018; 박남규, 2020)

다음으로 종속변수가 '임금 수준'인 2단계 OLS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개인 특성 가운데 자격증 수는 기존 연구와 같이 임금 수준을 유의하게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이규용·김용현, 2003). 대학 특성에서는 국공립 대학 졸업자의 임금 수준이 사립대학 졸업자보다 높았으며, 전공 계열에 따라서도 임금 수준에 차이가 나타났다. 직장 특성에서는 근속연수, 고용형태, 사업체 규모, 산업분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정규직일수록, 대기업일수록 임금수준이 높았으며, 제조업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핵심 관심 변수인 이동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후 비수도권에 취업한 경우(경로 1)는 이동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로그 시간당 임금이 0.109(약 11.5%)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수도권 대학 진학 없이 취업 단계에서만 수도권으로 이동한 경우(경로 2)의 임금은 0.044(약 4.5%) 높게 나타났으나, 그 프리미엄은 경로 1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 한편 수도권 대학 진학과 수도권 취업을 모두 경험한 경우(경로 3)는 로그 시간당 임금이 0.092(약 9.6%) 높게 나타나, 경로 2보다 큰 임금 프리미엄을 보였다. 이처럼 세 이동경로 모두 임금 수준을 유의하게 높였지만, 수도권 대학 진학을 경험한 집단(경로 1, 경로 3)의 임금 프리미엄이 취업 단계에서만 수도권으로 이동한 집단(경로 2)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 단계의 수도권 이동이 포함된 경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로별 임금 프리미엄의 차이는 선별가설(screening hypothesis)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수도권 소재 대학 학위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생산성과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신호(signal)로 기능하며, 이러한 학력 신호는 졸업 이후 근무지역이 달라지더라도 임금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연보라 외, 2015). 반면 취업 단계에서만 수도권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이러한 학력 신호의 효과 없이 수도권 노동시장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일자리 탐색 기회를 활용하는 데 따른 이점이 주된 임금 프리미엄의 원천이다(강동우 외, 2017). 따라서 수도권 취업 자체도 임금 향상에 기여하지만, 교육단계의 학력 신호가 결합될 경우 보다 높은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3. 교육 및 취업을 위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취업 및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차이 분석

본 절에서는 수도권 이동의 임금 효과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선택방정식(1단계)과 결과방정식(2단

Table 4. Effects of migration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on employment and wages (Full sample)

Category			<Model 1>			
			Wage employment (obs=5,566)		Wages (obs=3,262)	
			Coef.	Std.E	Coef.	Std.E
Migration characteristics	College migration to the SMA		0.225***	0.050		
	SMA-college & Non SMA-job (Path 1)				0.109***	0.029
	Non SMA-college & SMA-job (Path 2)				0.044***	0.013
	Both SMA-college & SMA-job (Path 3)				0.092***	0.024
Individual characteristic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x	-0.123***	0.045	-0.023	0.017
		Age	0.016	0.013		
		Married	0.226	0.155		
	Individual effort	Certificate	-0.001	0.013	0.012**	0.005
		GPA	0.007***	0.002	0.000	0.001
		Overseas experience	0.140**	0.059	-0.001	0.023
Parental characteristics	Father's education		-0.077**	0.035		
	Parental assets		0.063***	0.012		
College characteristics	Public university		0.099***	0.037	0.034***	0.015
	Major Field (ref.= Humanities)	Social sciences	0.242***	0.061	-0.057**	0.029
		Education	0.365***	0.073	-0.000	0.038
		Engineering	0.277***	0.059	-0.022	0.030
		Natural sciences	0.075	0.065	-0.046*	0.027
		Medicine	0.985***	0.096	-0.104	0.066
		Arts & Physical education	0.194**	0.078	-0.041	0.034
Job characteristics	Tenure				0.020***	0.006
	Employment status				0.100***	0.013
	Firm size				0.053***	0.011
	Industry classification (ref.=Manufacturing)	Construction			-0.059*	0.032
		Commercial & Hospitality services			-0.023	0.021
		Health & Social welfare services			-0.054*	0.028
		Others			-0.081***	0.014
	Job Classification (ref.=Production & Manual Occupations	Management / Office / Finance / Insurance			0.010	0.025
		Research & Engineering occupations			-0.016	0.024
		Public & Social services			0.012	0.029
		Arts, Design, Media & Sport			-0.034	0.033
		Service & Sales occupations			-0.005	0.031
_cons			-1.138***	0.398	0.419***	0.140
lambda					-0.421***	0.107
_Rho				-1.000		
sigma				0.422		

*p<0.10, **p<0.05, ***p<0.001

계)을 모두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추정하였다(Model 2-1, Model 2-2). 이에 따라 IMR 계수(λ) 역시 성별별로 각각 추정되어 취업선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별 선택편의를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두

Table 5. Gender-specific effects of migration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on employment and wages

Category			<Model 2-1>				<Model 2-2>			
			Wage employment (obs=2,827)		Wages (obs=1,735)		Wage employment (obs=2,739)		Wages (obs=1,527)	
			Coef.	Std.E	Coef.	Std.E	Coef.	Std.E	Coef.	Std.E
Migration characteristics	College migration to the SMA		0.246***	0.069			0.191**	0.073		
	SMA-college & None SMA-job (Path 1)				0.120***	0.034			0.094**	0.042
	None SMA-college & SMA-job (Path 2)				0.005	0.018			0.084***	0.018
	Both SMA-college & SMA-job (Path 3)				0.112***	0.029			0.089***	0.031
Individual characteristic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x	0.010	0.017			0.024	0.020		
		Age	0.878***	0.285			-0.168	0.202		
	Individual Effort	Certificate	-0.000	0.019	0.017***	0.006	-0.001	0.018	0.004	0.006
		GPA	0.009***	0.003	0.000	0.001	0.005**	0.003	0.001	0.001
		Overseas experience	0.231**	0.093	-0.025	0.033	0.077	0.076	0.021	0.026
Parental characteristics	Father's education		-0.129**	0.050			-0.021	0.050		
	Parental assets		0.061***	0.017			0.062***	0.017		
College characteristics	Public university		0.098*	0.052	0.028	0.019	0.099*	0.055	0.052**	0.021
	Major field (ref.=Humanities)	Social sciences	0.292**	0.095	-0.072*	0.038	0.193**	0.081	-0.019	0.033
		Education	0.143	0.121	0.105**	0.047	0.472***	0.093	-0.030	0.051
		Engineering	0.263***	0.085	-0.022	0.036	0.319***	0.091	-0.007	0.043
		Natural sciences	0.138	0.099	-0.091**	0.037	0.011	0.088	0.008	0.032
		Medicine	0.870***	0.174	-0.035	0.078	1.022***	0.117	-0.064	0.088
		Arts & Physical education	0.277**	0.138	-0.131**	0.053	0.169*	0.096	0.014	0.038
Job characteristics	Tenure				0.019**	0.008			0.019**	0.008
	Employment status				0.169***	0.019			0.032*	0.017
	Firm size				0.068***	0.015			0.044***	0.015
	Industry classification (ref.=Manufacturing)	Construction			-0.035	0.039			-0.083	0.053
		Commercial & Hospitality services			-0.057**	0.027			0.025	0.030
		Health & Social welfare services			0.020	0.047			-0.090**	0.035
		Others			-0.080***	0.018			-0.071**	0.022
	Job classification (ref.=Production & Manual occupations	Management / Office / Finance / Insurance			0.041	0.027			-0.063	0.060
		Research & Engineering occupations			-0.013	0.026			-0.054	0.061
		Public & Social services			-0.064*	0.035			0.027	0.063
		Arts, Design, Media & Sport			0.025	0.047			-0.092	0.065
		Service & Sales occupations			0.036	0.036			-0.083	0.067
_cons			-1.056**	0.541	0.313**	0.155	-1.298**	0.562	0.343*	0.195
lambda					-0.366***	0.110			-0.326**	0.142
_Rho				-0.947				-0.918		
sigma				0.387				0.362		

*p<0.10, **p<0.05, ***p<0.001

모형 모두 IMR 계수(λ)가 각각 −0.366, −0.326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여 표본선택편의 보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1단계 프로빗 모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 특성에서 학점은 남녀 모두의 취업확률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 유무와 해외연수 경험은 남성에게서만 유의하였다. 부모 특성에서 부모 자산은 남녀 모두 취업확률을 높였지만 아버지 학력은 남성에게서만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졸업 직후 취업보다 대학원 진학이나 전문직 준비 등 노동시장 진입을 유예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박지성·옥지호, 202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학 특성에서는 대학의 설립 유형과 전공 계열이 남녀 모두의 취업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공립대학 졸업자는 사립대학 졸업자보다 취업확률이 높았으며, 인문계열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전공계열에서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교육계열은 여성에게서만 취업확률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전공계열과는 구분되는 성별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동 특성에서는 수도권 대학 이동이 남성과 여성 모두의 취업확률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2단계 OLS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개인 특성에서는 자격증 수가 남성의 임금 수준을 유의하게 높이는 반면, 여성에게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학 특성의 경우 국공립대학 졸업 여부는 여성에게서만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였으며, 전공 계열에 따른 차이는 남성에게서만 확인되었다. 이는 전공 계열의 효과가 여성에게는 주로 취업확률 단계에서, 남성에게는 취업확률뿐 아니라 임금 수준에서도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직장 특성에서는 근속연수, 고용 형태, 사업체 규모가 모두 남녀의 임금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 분류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남성은 제조업을 기준으로 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종사자의 임금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여성은 보건 및 사회복지업 종사자의 임금 수준이 제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과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산업이 서로 다르고, 산업별 임금 수준의 차이가 성별 임금 격차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동 특성을 경로별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 이동의 임금 효과는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수도권 대학으로만 이동한 경우(경로 1)는 기준집단대비 로그 시간당 임금이 0.120(약 12.8%) 높았으며, 수도권 대학과 수도권 직장을 모두 경험한 경우(경로 3) 역시 0.112(약 11.9%)의 유의한 임금 프리미엄이 나타났다. 반면 취업 단계에서만 수도권으로 이동한 경우(경로 2)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남성에게서는 순수 취업이동만으로는 임금 프리미엄이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세 가지 이동경로 모두에서 유의한 임금 프리미엄이 확인되었다. 수도권 대학으로만 이동한 경우(경로 1)는 0.094(약 9.8%), 취업 단계에서만 수도권으로 이동한 경우(경로 2)는 0.084(약 8.8%), 수도권 대학과 수도권 직장을 모두 경험한 경우(경로 3)는 0.089(약 9.3%)만큼 각각 임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은 교육 단계와 취업 단계 중 어느 시점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이동경로에서 유의한 임금 프리미엄을 얻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로별 남녀 비교에서 특히 주목할 지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기존 연구와 같이 남녀 모두 수도권 대학 진학 후 비수도권에 취업한 경로(경로 1)에서 가장 높은 임금 프리미엄이 확인되었으며(조동훈, 2020), 이는 수도권 대학에서 축적된 인적자본 또는 수도권 대학 졸업이라는 학력 신호가 비수도권 노동시장에서도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순수 취업이동(경로 2)에서는 여성에게서만 약 8.8%의 유의한 임금 프리미엄이 나타났으며, 남성에게서는 유의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즉, 여성은 수도권 대학 진학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취업 단계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유의한 임금 프리미엄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 2에서 나타난 이러한 성별 차이는 비수도권의 산업·고용구조가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선행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고영우 외(2018)는 지역 내 남성 지배산업 종사자 비중이 높을수록 여성의 일자리 기회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으며, 고영우(2019)는 지방 출신 청년 여성의 경우 수도권 취업자의 정규직 비중이 비수도권 취업자보다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제조업 및 남성 중심 직종의 비중이 높은 일부 비수도권 노동시장에서는 대졸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수도권 취업 이동의 임금 프리미엄을 설명하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청년층, 특히 여성 청년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홍기석(2025)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비율이 2015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여성 청년의 이동률이 남성을 상회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임금 및 고용률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청년의 임금 격차는 서울 대비 비수도권에서 약 20% 수준까지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단순한 거주지 이동이 아니라 지역 간 노동시장 격차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선택임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비수도권에서 성장한 4년

제 대학 졸업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취업 과정에서 형성되는 수도권 이동경로가 취업과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초분석 결과 수도권 이동의 임금 효과는 이동경로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특히 수도권 대학 진학이 포함된 이동경로에서 높은 임금 수준이 확인되었으며, 순수 취업이동은 여성에게서만 유의한 임금 프리미엄이 나타나 이동경로의 경제적 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헤크만 표본선택모형 추정 결과, 개인·가구·대학·직장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수도권 대학 이동은 취업확률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 수준을 이동경로별로 분석한 결과, 세 경로 모두 유의한 임금 프리미엄을 보였으나, 수도권 대학 진학이 포함된 경로(경로 1, 경로 3)의 프리미엄이 순수 취업이동(경로 2)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 단계에서의 수도권 이동보다 교육 단계에서의 수도권 이동이 임금 프리미엄 형성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셋째, 성별 분리 모형(Model 2-1, Model 2-2)을 통해 이동경로별 임금 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이동의 효과는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 진학이 포함된 경로(경로 1, 경로 3)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유의한 임금 프리미엄이 확인되어 교육 단계의 수도권 이동 효과는 성별과 관계없이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대학 진학 없이 취업 단계에서만 수도권으로 이동한 순수 취업이동(경로 2)에서는 여성에게만 유의한 임금 프리미엄이 확인되었으며, 남성에게서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수도권 이동의 경제적 효과가 이동 시점과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취업 단계의 수도권 이동은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실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지역 대학 및 인재 정책 측면에서 볼 때, 수도권 대학 진학이 포함된 이동경로(경로 1, 경로 3)가 순수 취업이동(경로 2)보다 더 높은 임금 프리미엄을 보였으며, 특히 수도권 대학 졸업 후 비수도권으로 취업한 경로(경로 1)가 가장 높은 임금 프리미엄을 나타냈다는 점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수도권 대학에서 축적한 인적자본과 학력 신호가 비수도권 노동시장에서도 높은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조동훈, 2020). 따라서 비수도권에서도 이러한 인적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성장 기회를 확대한다면, 수도권에서 교육을 받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인재 유출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지역 대학의 교육 경쟁력 강화와 산학협력 확대, 지역 기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비수도권 대학 출신 인재의 노동시장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일자리 및 산업 정책 측면에서는 순수 취업이동(경로 2)의 임금 효과가 여성에게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수도권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환경이 여성 청년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며(고영우 외, 2018; 고영우, 2019), 여성들이 전공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 내에서 부족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단순한 일자리 수 확대를 넘어, 여성 청년의 진입과 경력개발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교육·문화·서비스 등 여성 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의 질적 고도화와 함께 안정적 고용과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 정책과 지역 정책의 통합적 설계 측면에서는 성별에 따른 이동경로의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수도권 대학 진학을 매개로 한 이동은 성별과 관계없이 유사한 임금 프리미엄으로 이어지는 반면, 대학 진학 없이 취업 단계에서만 이루어지는 수도권 이동은 여성에게서만 유의한 임금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는 청년층을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전제한 정책은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지역 인재 정책과 청년 고용 정책은 성별에 따른 이동 동기와 노동시장 경험의 차이를 반영하여,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단일 시점의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수도권 이동과 임금 수준 간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청년기의 장기적인 경력 형성과 임금 변화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둘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적용함에 따라 권역 내부의 지역 간 이질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수도권 내부와 비수도권 내부의 지역적 이질성까지 고려한 보다 세분화된 공간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 명목임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지역 간 생활비와 물가 수준의 차이를 직접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임금 프리미엄은 명목임금 기준의 효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별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임금 기준의 분석을 통해 수도권 이동의 경제적 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수도권 내부의 지역별 특성과 전공계열을 결합한 이질성까지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수도권 대학 진학 및 취업의 효과가 지역과 전공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성별 임금 프리미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수도권 내부 지역과 전공계열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분석을 통해 이동의 경제적 효과가 어떠한 산업 및 전공 특성을 통해 형성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

정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수도권 대학 이동과 수도권 직장 이동을 결합한 이동경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나, 경로별 임금 프리미엄이 학력의 신호효과(signaling effect), 인적자본 축적, 동료효과(peer effect) 등 어떠한 기제를 통해 형성되는지는 직접 검증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수도권 이동의 경제적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본 연구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근로 취업 여부와 임금 수준을 분석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는 임금근로 취업과 그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에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비임금근로를 포함한 청년층 전체의 노동시장 성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비임금근로 진입까지 고려한 분석을 통해 수도권 이동이 다양한 노동시장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본 연구는 임금근로 취업 여부에 따른 표본선택 편의는 보정하였으나, 대학 진학지와 취업지의 지역 선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택편의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지역 선택은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이므로, 관측되지 않는 개인의 능력, 선호, 동기 등의 특성이 이동경로의 선택과 임금 수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대학 진학이나 수도권 취업을 선택한 청년이 이러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면, 경로별 임금 프리미엄에는 이동의 효과와 함께 이러한 선별 효과가 일부 반영되어 추정치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지역 내 취업 기회나 가족·연고 등의 요인으로 비수도권 잔류를 선택한 청년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기준집단의 임금 수준이 높아져 경로별 임금 프리미엄이 과소평가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 선택에 따른 선택편의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 선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택편의를 고려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비수도권 출신 고학력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 및 취업 과정에서의 수도권 이동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수도권 이동을 교육 단계와 취업 단계의 이동경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 단계의 수도권 이동은 성별과 관계없이 유의한 임금 프리미엄으로 이어진 반면, 취업 단계에서만 이루어진 수도권 이동은 여성에게서만 유의한 임금 프리미엄이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경제적 보상 구조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청년·고용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를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 이 논문에서 저자는 문장 다듬기와 가독성 향상을 위해서만 Claude Opus5 (Anthropic, 2026)를 2026년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사용하였습니다. AI가 생성한 모든 내용은 저자들이 검토·수정·검증하였고, 최종 내용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주1. 365일÷12개월÷7일로 1개월당 평균적인 주의 수를 의미한다.

인용문헌
References

1. 강동우·고영우·최충, 2017, 「대졸자 직장이동의 지리적 특성과 임금효과」,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Kang, D.W., Ko, Y.W., and Choi, C., 2017.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Job Mobility among College Graduates and Its Wage Effects*, Sejong: Korea Labor Institute.
2. 강은택·마강래, 2014. "수도권 대학으로의 이동 요인과 졸업 후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9(6): 5-16.
   Kang, E.T. and Ma, K.R., 2014.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Student Migration to Higher Educ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49(6): 5-16.
3. 고영우·최효미·조장희, 2018. 「지역노동시장과 여성 고용에 대한 연구」,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Ko, Y.W., Choi, H.M., and Cho, J.H., 2018. *A Study on Local Labor Markets and Women's Employment*, Sejong: Korea Labor Institute.
4. 고영우, 2019. 「청년여성의 지역이동 특성과 수도권 취업이동 분석: 1970·1980·1990년대생 코호트 간 비교」,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Ko, Y.W., 2019. *Regional Mobility Characteristics and Capital Region Employment Migration of Young Women: A Cohort Comparison of Those Born in the 1970s, 1980s, and 1990s*, Sejong: Korea Labor Institute.
5. 길혜지·최윤미, 2014. "대졸자의 고용형태 결정요인 분석 연구", 「직업교육연구」, 33(6): 1-26.
   Kil, H.J. and Choi, Y.M., 2014. "The Effects of Individual and College Characteristics on Graduates' Employment Statu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3(6): 1-26.
6. 김승정·최호권·정예림·양완진·박인권, 2024. "성장기 거주지역에 따른 교육 및 임금 격차와 소득불평등의 재생산", 「국토계획」, 59(1): 88-102.
   Kim, S.J., Choi, H.K., Jung, Y., Yang, W.J., and Park, I.K., 2024. "Education and Wage Disparities According to Residential Areas during Periods of Growth and the Reproduction of Income Inequality",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9(1): 88-102.
7. 김안국, 2003. "청년층 미취업의 실태 및 원인 분석", 「노동경제논집」, 26(1): 23-52.
   Kim, A.K., 2003. "An Analysis of the Factors of Youth Unemployment and Nonparticipa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26(1): 23-52.

8. 김영민·정원석, 2024. "지역 간 임금 격차 분석을 통한 지역산업 인력 수급 개선 방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 42(2): 35-58.
Kim, Y.M. and Chung, W.S., 2024. "Improving Regional Industrial Labor Supply through an Analysis of Regional Wage Gaps: A Comparison between the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Journal of Korean Economics Studies*, 42(2): 35-58.

9. 김준수·조우홍, 2023. "청년 대학 졸업생의 취업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8(10): 241-246.
Kim, J.S. and Cho, W.H., 2023. "A Study on the Employment Predictive Factors of Young University Graduate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8(10): 241-246.

10. 김준영·이주현, 2017. "지방대학 졸업생의 수도권 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수도권대학 졸업생과의 비교", 「지역고용동향브리프」, 6: 1-22.
Kim, J.Y. and Lee, J.H., 2017. "Capital Region Migration and Labor Market Outcomes of Local University Graduates: A Comparison with Capital Region University Graduates", *Regional Employment Trends Brief*, 6: 1-22.

11. 김희삼, 2010. 「지방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와 지역별 교육격차」,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Kim, H.S., 2010. *Labor Market Outcomes of Local University Graduates and Regional Gaps in Education*, Sejong: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2. 남기곤, 2012. "대학 진학은 서울로, 합리적인 선택인가? –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 「경제발전연구」, 18(1): 81-114.
Nam, K.G., 2012. "Is It a Rational Choice to Enter a University Located in Seoul?: An Analysis Using Instrumental Variables", *Journal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18(1): 81-114.

13. 류장수, 2005.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 수도권 대학 졸업생과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28(2): 1-27.
Ryu, J.S., 2005. "Labor Market Outcomes of Local University Graduates: A Comparison with Capital Area University Graduates", *Journal of Korean Labor Economics*, 28(2): 1-27.

14. 문영만·홍장표, 2019. "대졸 청년의 취업 결정요인 및 노동시장 성과 격차: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7(2): 70-93.
Moon, Y.M. and Hong, J.P., 2019. "Determinants of Employment and Wage Differentials in the Regional Labor Market of University Graduates: Focusing on Southeast Region (Busan, Ulsan, Gyeongnam)", *Journal of Regional Studies*, 27(2): 70-93.

15. 박남규, 2020. "대학의 창업교육지원이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5(4): 97-108.
Park, N.G., 2020. "The Study on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art-up Education & Support on Employment Rat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4): 97-108.

16. 박지성·옥지호, 2022. "부모 배경요인이 실제취업에 미치는 효과: 부모 소득과 학력수준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12): 529-540.
Park, J. and Ok, J.H., 2022. "The Effects of Parental Backgrounds on Actual Employment: Focusing on Parental Income and Education Level",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2(12): 529-540.

17. 변금선, 2015. "가구 소득계층에 따른 청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 취업 이행기간 및 임금수준을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18(1): 129-161.
Byun, G.S., 2015. "The Labor Market Outcomes in Young Adulthood by Income Clas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18(1): 129-161.

18. 안준기, 2009. "어학연수가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 「교육행정학연구」, 27(2): 203-231.
Ahn, J.K., 2009. "The Effects of Overseas Language Training on Labor Market Entry after Gradu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7(2): 203-231.

19. 안준홍·권상욱, 2025. "대학 소재지에 따른 졸업생들의 초기 노동시장 성과: 전공-직무 불일치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25(2): 1-27.
Ahn, J.H. and Kwon, S.U., 2025. "College Graduates' Initial Labor Market Outcomes by School Location: Focusing on Horizontal Mismatch",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25(2): 1-27.

20. 양승훈, 2022. "산업도시의 정상가족 만들기 프로젝트와 공간분업", 「문화과학」, 112: 125-143.
Yang, S.H., 2022. "The Project of Constructing the 'Normal Family' and Spatial Division of Labor in Industrial Cities", *Cultural Science*, 112: 125-143.

21. 연보라·이승진·장희원, 2015. "출신대학 소재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첫 일자리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18(2): 1-24.
Yeon, B.R., Lee, S.J., and Jang, H.W., 2015. "Effects of University Location on Labor Market Outcomes of the First Job",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18(2): 1-24.

22. 오세규, 2003, "대졸자의 취업확률 결정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Oh, S.K., 2003.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Youth Employment Probability in Korea",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3. 이규용·김용현, 2003.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3(2): 69-93.
Lee, K.Y. and Kim, Y.H., 2003. "The Determinants of Youth Labor Market Performance",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3(2): 69-93.

24. 이상호, 2010. "지역간 이동의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 「지역연구」, 26(1): 45-70.
Lee, S.H., 2010. "Determinants and Wage Effects of Interregional Migratio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26(1): 45-70.

25. 이상호, 2022. "일자리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안적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산업과 고용」, 3: 8-21.
Lee, S.H., 2022. "Job Polarization and the Crisis of Local Extinction: Alternative Job Strategies Are Needed", *KEIS-Local Industry and Employment Policy*, 3: 8-21.

26. 이성균, 2015.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적 미스매치: 서울과 울산의 비교: 서울과 울산의 비교", 「경제와사회」, 108: 137-165.
Lee, S., 2015. "Structural Mismatch at the Local Labor Market

- A Comparative Case Study of Seoul and Ulsan", *Economy and Society*, 108: 137-165.

27. 이영민·이수영·임정연, 2014. "대학생 선호직장의 취업 결정요인 분석: 취업준비행동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3(1): 337-374.
Lee, Y.M., Lee, S.Y., and Lim, J.Y., 2014.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al Factors that Influence the College Graduates' Entering of Preferred Organizations: Focusing on Their Job Preparation Behaviors", *Journal of Social Science*, 53(1): 337-374.

28. 이정은, 2022. "산업도시의 젠더 인식과 청년들의 이동: 경남 창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134: 282-316.
Lee, J.E., 2022. "Gender Sensitivity and Young People's Migration in Industrial City: Focusing on the Case of Changwon, Gyeongnam", *Economy and Society*, 134: 282-316.

29. 임정준, 2010. "여성의 교육수준과 직종에 따른 임금차별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여성학」, 26(4): 39-61.
Lim, J.J., 2010. "Analysis of Gender Wage Discrimination by Educational Level and Occupational Type",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26(4): 39-61.

30. 정태영·이기엽, 2005. "대졸자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학점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학점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Korea Business Review」, 8(2): 159-184.
Chung, T. and Lee, K., 2005. "Determinants of Job Finding among College Graduates: with Emphasis on the Effects of GPA", *Korea Business Review*, 8(2): 159-184.

31. 조동훈, 2020. "청년층 지역이동과 임금수준 효과", 「노동경제논집」, 43(3): 123-148.
Cho, D.H., 2020. "Inter-Regional Migration and Wage Effects by College Graduates", *Journal of Korean Labor Economics*, 43(3): 123-148.

32. 채창균·김태기, 2009. "대졸 청년층의 취업 성과 결정 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28(2): 89-107.
Chae, C.K. and Kim, T.K., 2009. "Determinants of Employment Status Of University(College) Graduates Youth",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8(2): 89-107.

33. 최광성·강동우·최충, 2018. "지역이동이 대졸자의 임금 변화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41(2): 61-88.
Choi, K.S., Kang, D.W., and Choi, C., 2018. "The Impact of Internal Migration on Wage Growth among College Graduates", *Journal of Korean Labor Economics*, 41(2): 61-88.

34. 최호권·박인권, 2024. "생애주기별 기회로의 이동이 대졸 청년 임금 소득에 미치는 영향", 「지역연구」, 40(3): 75-93.
Choi, H.K. and Park, I.K., 2024. "The Impact of Moving to Opportunity Across Life Stages on College Graduates' Wage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40(3): 75-93.

35. 허식, 2007. "지역간 임금격차에 관한 요인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0(1): 1-16.
Heo, S., 2007. "Regional Wage Differentials in Korea: The Case of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0(1): 1-16.

36. 허현자, 2018.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Her, H., 2018. "Factors Influencing Employment of Two-year College and Four-year University Graduates in Korea", Ph.D.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37. 홍기석, 2025. "청년 인구 이동의 원인과 파급효과", 「경제분석」, 31(2):1-40.
Hong, K.S., 2025. "Causes and Effects of Youth Migration", *Economic Analysis*, 31(2): 1-40.

38. 황광훈·석진홍·이창행·정효채, 2025. "대졸 청년층의 대학 및 취업 소재지 유형에 따른 지역간 인구이동 노동시장 이행", 「지역정책연구」, 36(1): 87-117.
Hwang, K.H., Seok, J.H., Lee, C.H., and Jung, H.C., 2025. "Inter-regional Population Movement and Labor Market Transition by University and Employment Location Type of College Graduate Youth", *Regional Policy Review*, 36(1): 87-117.

39. 황여정·백병부, 2008.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11(2): 1-23.
Hwang, Y.J. and Baek, B.B., 2008. "Determinants of Employment Status of University Graduates Youth",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11(2): 1-23.

40. Bartel, A.P., 1979. "The Migration Decision: What Role Does Job Mobility Play?", *American Economic Review*, 69(5): 775-786.

41. Borjas, G.J., 1987, *Self-selection and the Earnings of Immigrants (No. w2248)*, Cambridge, M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42. Borjas, G.J., Bronars, S.G., and Trejo, S.J., 1992. "Assimilation and the Earnings of Young Internal Migrant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4(1): 170-175.

43. Borjas, G.J., 2014. *Immigration Economic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44. D'Costa, S., 2024. "Re-evaluating the Urban Wage Premium: The Changing Roles of Geographical and Job Transitions for Women and Men",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108: 104038.

45. Gabriel, P.E. and Schmitz, S., 1995. "Favorable Self-Selection and the Internal Migration of Young White Mal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Human Resources*, 30(3): 460-471.

46. Hunt, J.C. and Kau, J.B., 1985. "Migration and Wage Growth: A Human Capital Approach", *Southern Economic Journal*, 51(3): 697-710.

47. Papageorgiou, T., 2022. "Occupational Matching and Cities", *American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14(3): 82-132.

48. Petrongolo, B. and Ronchi, M., 2020. "Gender Gaps and the Structure of Local Labor Markets", *Labour Economics*, 64: 101819.

49. Sjaastad, L.A., 1962. "The Costs and Returns of Human Mig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5, Part 2): 80-93.

Date Received 2025-12-25
Reviewed(1st) 2026-03-20
Date Revised 2026-07-17
Reviewed(2nd) 2026-07-31
Date Accepted 2026-07-31
Final Received 2026-08-04